



베스트셀러

1. 호의에 대하여/문형배/김영사
2. 흔한 남매20

(9월 9-15일/예스24 제공)

3. 지금 근현대사



오디오북 인기 순위

1. 퀴즈쇼/김영하/북복서가
2. 장미와 나이프
3.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9월 9-15일/윙라 제공)

국방일보 12·13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세계 질서를 흔드는 중국의 해양전략

중국의 지정학

중국은 경제 부흥과 해양 패권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며 21세기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 책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이 해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온 과정을 상세히 짚어 낸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중국의 군사·경제·외교전략을 종합 분석한다. 독자는 책에서 중국의 전략이 세계 질서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이해하고,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비할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그 외들린 지음
이대희 옮김
에코리브르 펴냄

지속 가능한 미래의 해답, 흙 속에 있다

흙의 숨

흙은 생명을 지탱하는 바탕이자 인류의 문명을 갈라 낸 뿌리다. 저자는 세계 곳곳을 답사하며 흙의 숨결과 그 속에 기대 살아온 인류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농경과 토양생물학, 정기와 가족의 역사 같은 과학적 주제를 다루는 동시에 흙이 문화와 삶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보여 준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해쳐 나갈 해답이 필요한 현재, 지속 가능한 미래의 해답 역시 우리가 밟고 사는 흙 속에 있다.



유경수 지음
김영사 펴냄

창공대 골프장서 쌓은 경험·노하우 공개

인간 중심의 골프장 경영 KNOW-HOW!

예비역 육군대령인 저자가 창공대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사장으로서는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집필한 골프장 경영 안내서. 그는 취임 초기 조직 내 노사 갈등, 직원 대규모 보직 변경, 노후시설과 예산 부족, 인공지능(AI) 전동카트 도입에 따른 운영 변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장 중심의 소통과 상호 존중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조직을 안정시켰다. 책은 군 체력단련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인간 중심의 경영으로 조직과 시설을 발전시킨 실제 사례를 들어 골프장 경영에 필요한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백규훈 지음
오늘의문학사 펴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아침 수영의 기적

앞으로 안 나아가는 기분

수영장에 들어가면 차가운 물이 온몸을 깨우고 새롭게 시작할 힘이 솟는다. 딱 한 자리 남은 아침 수영반을 등록한 덕분에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강사의 출발 소리에 맞춰 한 바퀴, 두 바퀴 수영장을 도는 동안 머릿속 근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기운이 차오른다. 매일 같은 레인에서 마주하는 이들과 나누는 연대감, 조금씩 늘어 가는 실력에서 얻은 성취감은 수영의 즐거움을 배로 만든다. 이는 운동 무능력자에서 수영 전도사가 된 저자가 독자에게 전하는 초대장이다. 김세은 인턴기자



우지경 지음
b.read 펴냄

작가와와의 만남

이윤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본부장

관계의 심리학:
감정을 설계하는 힘

대한기획인쇄 펴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심리의 전장을 살아간다. 말 한마디에 감정이 흔들리고 작은 오해에 신뢰가 무너진다. 스쳐 지나가는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친다. 사람받기 위해 설득하고, 인정받기 위해 거짓을 감춘다. 때로는 침묵으로 혼돈다. 인간관계가 이뤄지는 모든 순간이 심리전의 영역인 셈이다.

이윤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이를 ‘관계의 심리전’이라고 명명했다. 누군가의 말투, 표정, 침묵 속 의도를 읽고 자신의 감정을 설계해 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기술이란 의미에서다.

“군 생활을 포함해 지금까지 40여 년간 심리작전을 수행하고, 작전을 기획하고 분석해 왔는데 군사현장보다 더 치열한 전장은 일상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고, 해킹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심리전은 적군이나 군사적 상대만이 아니라 매일 부딪히는 인간의 감정 틈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합니다.”

최근 발간된 『관계의 심리전』은 이 같은 그의 깨달음을 1년여에 걸쳐 정리한 결과물이다. 1부 인간 본성과 심리전의 작동 원리, 2부 자기 심리전-내면 통제와 변화의 심리전략 등 총 8부로 구성된 책은 군사심리전의 원리와 경험을 인간관계, 조직생활, 디지털 위협, 국가전략으로까지 확장했다. 우리의 가정식탁, 회사 회의실, SNS 댓글 창, 군 상하관계의 지휘 통솔까지. 이 모두가 심리전의 장(場)이라는 게 그 이유다.

예를 들어 보자. 한 프리랜서 작가는 수백 명의 친구와 소통하며 하루 종일 알람을 확인했지만, 실제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단 2~3명뿐이었다. 그는 수많은 연결이 오히려 자기 시간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필요한 계정을 제외하곤 다 정리하고 알람도 껐다. 이후 집중력과 정서 안정을 되찾았고, 소수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이처럼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다. 정보 과잉, 감정 분산은 정서적 고갈을 초래한다. 심리전의 승리자는 많은 이와 얽힌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한반도 안보 리포트 2025:
북한의 군사력 및
전쟁 위험 평가

박영준·함형필·김태현 등 지음
사회평론아카데미 펴냄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논의의 기본이자 출발점은 북한의 군사력과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다. 그동안 북한이 ‘위협적’이란 진단을 반복해 왔지만, 정작 그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에 기반하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다룬 국내 연구기관 자료는 드물었다. 책은 이러한 현실을

승리보다 신뢰 확보하려면
군사현장보다 치열한 일상

40여 년 군·연구현장서 심리전 기획·분석…학문적 이론·실제 경험·노하우 녹여내
국가 차원 전략 커뮤니케이션 준비 제안…“삶의 지혜가 되는 실천 지침서 되길”

이 본부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심리전을 단순한 군사전략·작전을 초월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K콘텐츠는 이미 세계인의 감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한 문화산업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전략자산으로 기획해야 합니다. 목표·대상·메시지·채널·타이밍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심리전은 군사외교는 물론 기업과 사회 전반에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심리전은 곧 국가 신뢰와 이미지, 국민 통합을 지켜 내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의 미덕은 군대에서 다듬어진 심리전 기법을 생활 속 심리전으로 전환하고, 구조를 단순화해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해킹 등 최신 수법의 디지털 위협을 ‘감정 트리거(감정 반응이나 행동을 촉발하는 특정 자극)’ 관점에서 분석하고 군·공공조직·가정·SNS 등 현실 사례를 풍부하게 담아 독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곧바로 대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심리전을 소개한 다른 책들과의 차별점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승리만을 추구하자는 게 책의 본질은 아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손실을 줄이고 신뢰와 공존을 늘리는 실천 지침서가 되길 바라는 게 이 본부장의 집필 의도다.

“관계의 심리전은 결국 상대의 감정을 읽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생존전략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의 삶에서 감정의 나침반, 관계의 회복력이 되길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주도권을 지키고, 누군가의 감정 뒤에 숨은 진심을 읽어 내며 자기 감정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질 때 더 이상 관계의 심리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책을 펼쳐 보자. 바로 그 순간부터 또 하나의 심리전은 시작된다.

글=이주형/사진=김태형 기자

기후위기 고민, 시·그림에 담다



교보아트스페이스 ‘아주 오래 걱정한 미래’展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시와 그림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대산문화재단은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 교보아트스페이스에서 문학그림전 ‘아주 오래 걱정한 미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관한 관심을 문학과 미술이라는 예술을 통해 환기하기 위해 선보이는 것으로, 인간과 자연의 미래 사유를 시와 그림에 담아내고자 했다.

14명의 시인이 기후위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주제로 시를 쓰고 14명의 화가가 한 편씩 골라 그림으로 옮겼다.

시에는 김리운·김승화·마운자·박소란·서윤후·안미옥·안태운·이문재·이원·이현승·장철문·정현중·조은윤·진은영이, 그림에는 김현·권기동·김남규·김선두·김신해·김정옥·김호준·박영근·이승애·이현정·정다겸·주형준·조세랑·황규민이 참여했다.

전시와 함께 도록도 발간됐다. 전시회 출품작 14편의 시와 14점의 이미지가 포함된 도록은 기후위기 속 예술의 역할에 대한 양경언 조선대 교수의 해설을 실었다. 도록은 SNS 이벤트에 참여하는 전시 관람 고객들을 대상으로 증정한다.

문학나눔 선정도서 345종 발표

출판진흥원, 전국 공공도서관 등 무료 보급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은 ‘2025년 문학나눔 도서 보급’ 사업을 통해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초판 발행된 문학도서 345종을 최종 선정, 지난 11일 발표했다.

올해는 총 4468종의 도서가 접수됐으며, 분야별 전문가 100명이 참여한 1·2차 심사를 거쳐 ‘3월의 마치’ 등 △소설 61종 △수필 83종 △시 51종 △아동·청소년 139종 △평론 7종 △희곡 4종이 최종 선정됐다.

출판진흥원은 오는 11월부터 선정도서 약 20만 권을 전국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인문시설, 해외 한국문화원 등에 무료 보급할 예정이다. 보급처를 대상으로 한 도서 수요조사는 10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도서 목록 및 심사평은 출판진흥원 누리집(www.kpipa.or.kr)과 세종도서 온라인시스템(bookapply.kp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판진흥원은 작가와 독자를 직접 연결하는 ‘문학나눔 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14일 ‘문학주간 2025’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북콘서트를 시작으로 20일 전남 목포 문학관, 21일 강원 원주서립미술관내도서관, 28일 경북 포항 포은흥해도서관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행사가 이어진다. 10월 이후에도 지역별 남북화·대담·강연이 지속돼 작가와 독자의 교류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주형 기자